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仮名) 표기에 관한 고찰*

—명치 이전 한국어학습서류와의 비교를 통하여—

편 무 진**

(e-mail : mjpyon@dku.edu)

目次

1. 들어가기
 2. 明治時代の 韓國語學習書
 3. 雨森芳洲의 『全一道人』 과 『交隣須知』 의 한국어 仮名 표기
 4. 宝迫繁勝의 『日韓善隣通話』
 5. 한국어에 仮名로 발음표기한 학습서류
 6. 仮名에 의한 한국어 발음표기만 있는 학습서류
 7. 맺음말
-

1. 들어가기

한국어를 일본의 가나(仮名)로 転写 表記한 最古의 기록은 『日本書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서 고려시대의 『二中歷』, 조선시대 초기의 尙馬島 古文書類, 17세기 초의 『陰德記』, 19세기 초의 漂流民 기록인 『朝鮮人見聞書』 등에도 仮名 音注가 보인다.¹⁾ 그러나 이러한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기록은 주로 朝鮮의 地名이나 人名과 관련한 단어 레벨에서의 단편적인 어휘가 대부분

* 본 연구는 2008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1) 이처럼 한국어의 한글을 일본어의 仮名文字로 바꿔 쓸 때 ‘轉寫(transcription) 또는 ‘音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前者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다. 문 레벨에서 한국어를 仮名로 転写表記한 최초의 문헌은 雨森芳洲의 『全一道人』(1729)이며, 明治時代に 들어서는 1881년의 『日韓善隣通話』를 필두로 한 活字本の 韓国語學習書類에 仮名 音注表記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전사 표기된 일본어의 仮名 音注가 한국어의 音韻史 研究資料로 활용되고 있지만,²⁾ 이러한 표기들에 대한 通時的 省察은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本稿에서는 19세기 말의 『日韓善隣通話』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에 성립된 筆写本 『全一道人』과 『交隣須知』, 그리고 그 이후의 明治期에 간행된 일부 한국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仮名 転写表記의 특징과 표기법의 변화상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明治時代の 韓國語學習書

일본에서의 한국어학습은 18세기 초 対馬島の 藩儒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에 의해 시작되어 당시 대마도와 薩摩藩 苗代川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던 것이 1880년에 東京外国語学校(現 東京外国語大学)에 朝鮮語科가 설치됨으로써, 근대적인 학교교육 제도 하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편무진 2004:120-123). 이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시기는 바로 일본이 세계적인 제국주의로 발돋움한 시기로, 당시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주변의 열강들과 쟁탈전을 벌이던 시대였다.

그러한 연유로 일본 국내에서는 이 시기에 주변국들의 언어에 대한 학습서가 많이 편찬되게 되는데,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1910년의 한일합방 전까지 70여종의 학습서가 발간되었다(山田 1997:62-63). 그 중 1894년과 1904년에는 각각 17종과 13종으로 1년에 가장 많은 학습서가 출판된다. 이는 당연히 198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책명에 『兵要朝鮮語』와 같은 군사용어나 『日韓會話』와 같이 參謀本部가 직접 편집에 관여하는 등, 군사 목적으로 발행된 것들이 많은 점으로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하는 문헌은 江戸時代 雨森芳洲의 직간접 관여가 인정되는 한국어학습서류(a)와 初期의 「韓國資料」³⁾, 즉 명치시대 특히 1881년

2) 앞서 『全一道人』의 전사표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송민(1986)의 『前期近代國語音韻論研究』를 비롯하여, 근래에는 陳南澤(2003)의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と韓國語の音韻史研究』(東京大学博士論文) 등이 있다.

3) 필자는 1880년부터 일제강점시기의 韓日語 對譯 學習書類를 「韓國資料」로 명칭하고, 그 이전 시대의 문헌자료인 「朝鮮資料」와 구별하고 있다(편무진 2001 참조).

부터 1904년의 러일전쟁 발발시기까지에 간행된 한국어학습서류(b)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류는 일반적으로 본문의 한국어에 仮名로 발음표기를 한 것(b-1)과, 본문에 한글은 없고 오로지 仮名에 의한 한국어 발음의 転写表記만인 것(b-2)의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a)와 (b-1)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b-2)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표기의 경향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a. 江戸時代の 韓国語學習書類

- (1) 全一道人(1729), 雨森芳洲
- (2) 交隣須知(卷1 일부, 19세기 전반기 筆写?) Aston本

b. 明治時代の 韓国語學習書類

b-1. 한국어에 仮名로 전사표기 한 것

- (1) 日韓善隣通話(1881), 宝迫繁勝
- (2) 和韓會話獨学(1882), 武田甚太郎
- (3) 日韓英三國對話(1892), 赤峰瀨一郎
- (4) 日韓會話(1894), 參謀本部

b-2. 仮名 표기만인 것

- (1) 朝鮮醫語類集 (1894.6)
- (2) 朝鮮語海上用語集 (1894. 6)
- (3) 朝鮮俗語早学 (1894.7)
- (4) 兵要朝鮮語(1894.7)
- (5) 実用朝鮮語 (1894.7)
- (6) 朝鮮日本會話篇 (1894.8)
- (7) 新撰朝鮮會話(1894.8)
- (8) 日清韓對話便覽 (1894.9)
- (9) 日韓清會話 (1894.9)
- (10) 日清韓三國會話(1894.9)
- (11) 朝鮮通語獨案内 (1894.12)
- (12) 日清韓三國通話 (1894.12)
- (13) 日露清韓會話自在法(1904.2)
- (14) 韓語獨り卒業(1904.4)

이와 같은 역사적 문헌자료에 사용된 仮名 転写表記의 흐름을 현대적인 관

점에서 보았을 때, 몇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한국어의 子音과 관련한 轉写表記로, 표기법상 대략 齒莖音인 ‘ㅈ, ㅊ, ㅌ’을 語頭音으로 하는 音節, 그리고 破擦音과 破裂音 등과 관련한 假名 표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母音에 대해서는 한국어의 二重母音이나 轉写 時에 母音交替가 일어나는 표기들이 대상이 된다. 이하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문헌들의 표기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3. 雨森芳洲의 『全一道人』과 『交隣須知』의 한국어 假名 표기

『全一道人』은 『勸懲故事』의 한국어 번역문을 芳洲가 일본어의 假名로 轉写한 것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어학습서로서 最古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한편 『交隣須知』역시 芳洲의 原著로 추정되는데, 한글에 대한 假名 전사표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原祖本系列 古写本類인 Aston本으로, 卷1의 일부인 1책 11쪽이다(편무진 2005:28-29, 편무진·岸田 2005 참조). 이 책은 苗代川本 『交隣須知』와 마찬가지로 대략 19세기 전반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全一道人』과 『交隣須知』상의 전사표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全一道人(1729)

1) 語頭音 ‘ㅈ’과 ‘ㅊ’

後行하는 表面的 音聲環境이 口蓋性 轉移音 y일 경우에는 일본어의 假名 音注도 拗音 表記가 일반적이거나, 非y音일 경우에는 ㅈ行 假名에 *(3濁点)을 사용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예) 제: サ*イ/ソ*イ, 차: サ*/ソ*, 주: ツ

이와 같은 예는 齒莖音 ‘ㅈ’이나 ‘ㅊ’이 非口蓋音임을 나타내는 轉写로 보인다. *(3탁점)은 그러한 発話現實을 반영하고자 고안한 전사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韓國語 音韻史에서의 ‘ㅈ’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표기로,⁵⁾ y 앞에서 구개음화된 것과 구별하고자 한 逐字表音(transliteration),⁶⁾

4) 물론 각 문헌별로는 개별적 성향의 轉写表記들도 나타난다. 그러한 개별적 차이는 가능한 한 무시하고 전체적인 경향으로서의 전사표기를 주로 다루기로 한다.

5) 隨意的 變異로서의 ‘ㅈ’구개음화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견해가 있다(송민 1986:74), 『全一道人』에서의 이와 같은 표기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3탁점)은 이외에도 일부 有氣音과 硬音 音節의 区分符號(diacritical mark)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形態的(表意的) 表記의 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2) 硬音

語頭 合字並書の 子音的 要素를 전사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역시 형태적 표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예) 깨/지: スカイ, ㅼ: ブト, ㅼ: 스토, ㅼ: 스펙*, ㅼ: フ*ソ, ㅼ: 스프

3) 内破音的 ッ 表記

한국어의 硬音이나 有氣音 앞에 促音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일본어적 발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예) 밧과: ハ* ッカイ<18>, 후쳐: フッテ* <19>

4) 語頭音 ‘ㄴ’

‘ㄴ’이 ‘ㄷ’나 ‘ㄹ’와 같은 高母音과 ‘ㄱ’와 같은 非高母音 앞에서 ㄷ로 표기되는 예가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어 d음 자체의 鼻音性 資質 때문이다.⁷⁾ 특히 ‘ㄱ’ 모음 앞의 ‘ㄴ’은 거의 ㄷ로 表音되었는데, 한국어의 ‘ㄱ’ 앞에 오는 ‘ㄴ’은 일본인들에게 d음으로 인식되기 쉬운 결과일 것이다.⁸⁾

예) 뉘웃쳐: ドヨツサ* <19>, 너과: ドクワ<52>, 네: 도이<46>

5) ‘두’와 ‘드’

주로 ㄷ로 표기된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 음절에 대하여는 ㄷ가 가장 일반적인 전사표기라고 할 수 있다.

예) 두던의: ト、ヌイ<37>, 드터여: トテイヤ<19>

6) 母音交替 転写

語中에서 ‘ㄱ’(ə)나 ‘ㄱ’(ya), 특히 ‘ㄱ’가 일본어의 ㄱ段音으로 대응되는 예

6) 한국어를 일본어로 전사표기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글 字母 하나하나에 仮名를 대응시켜 표기하는 逐字表音(transliteration)과, 한글의 音価를 반영하여 현실발음을 표기하는 逐音表記(transcription)가 그것이다.(정광 1982:34)

7) 한국어의 ‘ㄱ, ㄴ’에는 조건적 변이음 [ʰm, ʰn] 가 있었고, 일본어의 b, d는 그 자체가 鼻音性을 동반한 [ʰb, ʰd] 였기 때문이다.(송민 1986:39)

8) 이와 같은 발음상의 특징에 대하여 前間恭作(1909)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尚發音の有様弛くして引き締まらざることは實に朝鮮音の特徴と見え「ㄱ」「ㄴ」「ㅇ」の子音に於ては前者よりも其傾向更に著しく普通の國語に於ける「m」「n」「ng」の如く音機緊閉せず音機作用の際を通じて氣は常に漏出するが故に「ㄱ」は鼻にかゝりたる「m」「ㄴ」は「d」「ㅇ」は母音に近きもの、如く發音せらるゝこと多し「ㄴ」(おまへ)「ㄴ」(誰)「ㄴ」(遠うございます)「밀가루」(麥粉)「강이」(河)「방어」(鱒)など「ㄱ」「ㄷ」「ㄹ」の母音に先行する場合には此特徴は尤も顯著なり(『韓語通』p.10)

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 누언: $\text{ㄴ}\underline{\text{ㄹ}}$ <54>, 미여: $\text{ㅁ}\underline{\text{ㅂ}}$ <36>, 녀겨: $\text{ㄴ}\underline{\text{ㄷ}}$ <49>

이와 같은 예는 후술하는 19세기 말의 한국어학습서류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당시의 ‘ㄴ’나 ‘ㄷ’가 현대한국어의 그것들보다는 다소 後舌開母音으로 발음되는 발화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⁹⁾

7) ‘·’음

대체적으로 ア 段音(a)과 オ 段音(o) 仮名으로 표기된다

예) 혼변의: $\text{ハ}\underline{\text{ン}}\text{バ}\underline{\text{ヌ}}\text{イ}$ <34>, 놀려 [飛]: $\text{ノ}\underline{\text{ル}}\text{リ}\underline{\text{ャ}}$ <59>

18세기의 『全一道人』은 이미 ‘·’의 非音韻化가 완성된 시기의 문헌으로 볼 수 있는데(송민 1986:112-136), ‘놀려’처럼 제1음절의 ‘·’를 o로 전사표기 한 것도 그 1예라고 할 수 있겠다.

8) 二重母音

일반적으로 仮名 音注도 이중모음표기로 나타나는데, ‘ㄷ’와 ‘ㄷ’ 그리고 ‘·’를 音節主音으로 하는 ‘·’의 일부 음절에서 單母音化한 ‘ㅁ’(æ)의 表音에 해당하는 エ 段의 仮名 표기도 보인다.

예) 더호야: $\text{타}\underline{\text{이}}\underline{\text{하}}\underline{\text{야}}$ <107>, 업더여: $\text{우}\underline{\text{브}}\underline{\text{테}}\underline{\text{요}}$ <28>

정리하면, 1)2)의 경우처럼 형태적 표기를 채용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는 대략 현실음을 반영하는 音素的(表音的) 표기라고 할 수 있겠다. 芳洲는 발화현실을 나타내는 仮名 표기를 통하여 말을 익힘과 동시에, 한국어 添記를 통하여 표기의 규범을 알 수 있도록 위와 같은 轉写 方式을 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交隣須知

1) 語頭音 ‘ㅈ’

後行音이 y인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仮名 チ 가 대응되나 ツ 도 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非y音인 경우에도 비슷하다.

예) 자/즈: 차 , 저: $\text{초}/\underline{\text{츠}}$, 주/쥬: $\underline{\text{츄}}$

9) 정광(1982:36)은 1884년에 편찬된 『明治字典』의 예를 들어 ‘ㄷ’의 開音性を 지적하고 있다(後述하는 『日韓善隣通話』의 해당 항목 참조). 18세기 당시에도 이 모음들은 開母音性的의 音聲資質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경음 ‘ㅈ’이 이미 구개음화되었음을 나타내는 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제’를 ヅ이로 표기한 예도 보이며, 이 전사표기는 ‘ㅈ’에도 적용된다.

2) 有氣音과 硬音

有氣音과 硬音 表記는 일반적으로 平音 表記와 동일한 仮名 転写表記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硬音과 관련하여 語頭 合字並書의 子音的 要素를 転写 表記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全一道人』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語頭音 ‘ㅈ’의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表音的 表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단, 硬音의 경우 음절 말에 ツ를 붙여, 발음적 특성을 표기에 반영하고자 한 특별한 転写의 예가 약간 보인다.

예) 츠: ツヲ/チャ, 초: ツヨ/チョ
ㅈ: カツ, ㅉ: ツツ

3) ‘두’와 ‘드’

ツウ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トウ의 표기도 보인다.

예) 드러오니: トウロウヲニイ<-06b>

4) 二重母音

‘내, ·이, 궈, 궈, 니, 기, 니’ 등은 대부분 仮名 두 음절에 의한 이중모음 표기로 나타나나, ‘디’의 경우에는 單母音化한 テ의 예도 보인다. ‘ㅌ’와 ‘·’의 仮名 音注는 표기상 구별이 없다.

예) 디마쥬: タイマアツウ<4b>, 심심훈디: シムシムハンテ<1b>

한편 ‘ㅈ, ㅋ, ㆁ, ㆁ’은 주로 일본어의 요음(拗音)과 호응하고 있다.

예) 샤: シャ, 려: リョウ, ㄷ: チョ

단, ‘ㄷ’의 경우는 拗長音 표기 이외에 일본어 ㄱ段音으로 표기한 예도 보인다. 이러한 전사표기는 『全一道人』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이다.

예) 겨: ケ, 며: メ, 셔: セ, 여: エ

5) 母音交替 転写

語中에서 ‘ㅌ’(ə)나 ‘ㄷ’(ya)가 일본어의 ㄱ段音으로 表音되는 예도 약간 보인다.

예) 가셔: カサア<-03a>

6) ‘·’音

이미 非音韻化 된 ‘·’는 일반적으로 제1음절에서는 ア段(a), 제2음절 이하에서는 ア段(a)·オ段(o) 仮名로 표기된다.

예) 뱀뿔이: パロミイ<2a>, 농스: ノムサ<7a>

7) 長音 仮名 表記

單母音으로 끝나는 한국어의 閉音節이나, ‘명일은 메헤기룬’처럼 閉音節이라 하더라도 이웃하는 음절과의 連音으로 개음절로 발화되는 경우도 仮名로 전사할 때 장음표기하는 예들이 많다.

예) 「日」<1a>

히 가 불 셔 나 지 나 되 여 시 런 마 는 후 리 니 즈 시
 ハイカ パルセ ナアチイナア トヤアシレンマアノン フウリニ チャシイ
 모 르 올 시
 モロアルソイ

「名日」<9b>

명 일 은 둘 마 다 이 시 되 절 일 을 명 일 이 라 흐 읍 니
 メヘギルン タルマアタア イ、シイトイ チエギルン 메헤기루 ハツブノイ

이러한 전사표기는 『全一道人』에도 보이지 않았던 특이한 표기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당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언어의식의 반영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 같은 閉音節 構造의 言語를 閉音節 構造의 仮名를 사용하여 表音的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의 받침이 ‘ㅇ’으로 시작하는 다음 음절의 初聲으로 발음되는 連音 現象은 결과적으로 개음절인 일본어의 발음 현상과 유사하게 된다. 일본어에서는 長音이 중요한 音韻的 要素이다. 일본인들이 連音 現象을 포함한 일상적인 한국어 발음을 長短音이라는 音聲的 自體로 파악하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위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語節末에서는 주로 短音(非長音) 표기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어절 안에서는 장음표기가 많은 것 또한 連音을 포함하여 한국어를 일본어적 관점에서 表音的으로 표기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받침을 가지는 한국어의 1음절은 일본어의 仮名 2글자로 轉写된다. 실제로 위의 예문을 통해서도 한국어의 1음절에 대하여 일본어의 仮名 두

자(음절)가 대응된 예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음절 의식이 개음절에도 적용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本書가 筆写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 당시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에게 長短音이라는 拍子感에서 한국어 한 글자는 假名 2음절로 인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¹⁰⁾ 한국어 개음절에 대한 假名の 장음표기는 어느 면에서 音節 区分符号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음표기가 한국어의 모든 개음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音儘가 동일한 字母에 대하여 假名 전사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表記의 경향을 당시 일본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의식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한 예로 ‘ㅏ’는 장음표기가 일반적인 반면, ‘·’는 非長音으로 表音되는 경향이 있다.¹¹⁾ 특히 위의 「名日」의 예문에서처럼 述語로 많이 쓰이는 ‘ㅎ다’의 ‘ㅎ’는 모두 ㅏ로 表音되어 있다.

이처럼 『交隣須知』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假名 표기를 『全一道人』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보다 表音的(音素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硬音 표기와 관련하여 음절 말에 ㅈ가 사용된 예가 나타나는데, 이는 後述하는 『日韓善隣通話』에 주로 사용된 특수한 전사법으로, 특히 有氣音의 標識 機能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日韓善隣通話』에서의 이와 같은 ㅈ표기의 배경이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당시 『交隣須知』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어학습서였고 宝迫繁勝 자신 직접 本書의 편찬에 관여했던 만큼, 『交隣須知』에서 힌트를 얻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日韓善隣通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음상의 개음절 구분부호 기능을 하는 長音의 假名 표기 또한 『交隣須知』에 그 사용예가 보인다.

다음은 『日韓善隣通話』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한국어학습서류에 나타나는 假名에 의한 한국어 轉写表記의 주된 성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4. 宝迫繁勝의 『日韓善隣通話』

호세코(宝迫繁勝)는 山口県 출신으로 명치 초기의 朝鮮語学者로 일찍이 부

10) 1894년에 편찬된 『日韓會話』의 緒言에 「諺字ハ其上下ノ影響及口調ノ抑揚ニ依リ本音ヲ失ヒ又ハ長短緩急ノ差ヲ生ス故ニ傍訓ハ以テ直チニ其本音ト認ムヘカラス」라고 하여, 音律的 要素를 실제로 표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1) 본문이 권1의 일부만 필사된 아스톤본 『交隣須知』에서 ‘·’를 中声 혹은 音節主音으로 하는 음절은 대다수 單音節의 假名로 전사된다. 變音 表記인 ‘미이 마이’ <2a><4b>를 제외하면 제1음절에서 장음표기 된 예는 ‘곰으니 카암니이’ <5b> 정도이다. 이것은 이미 음성적으로 구별이 없어진 ‘ㅏ’와 ‘·’를 表記적으로 구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산에 건너와 草梁의 倭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명치12년(1879)에 외무성 공무원으로 東京에서 韓語學書의 校正 등에 종사했다. 명치14년 初刊本 『交隣須知』와 명치15년 『訂正隣語大方』의 인쇄자이며, 명치16년판 『交隣須知』(白石氏藏版)의 刪正者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韓語入門』(1880)과 『日韓善隣通話』가 있는데, 이 학습서들은 기존의 江戸時代의 전통적인 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西洋의 文法論을 과감하게 적용한 한국어 문법 분류, 실용적이고 실제성이 높은 대화문 구성 등을 이루어낸 새로운 교재라고 할 수 있다(강남옥 2009:211).

菊判和装 上下 2卷. 獨習者들을 위하여 평이한 문답체를 내용으로 하는 회화서로 당시 부산 거류 일본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한국어학습서이다(桜井 1979:494). 『日韓善隣通話』의 上卷 제1장의 冒頭에 한글과 假名 対照表인 「九十九音之圖」가 실려 있는데, 제2장 이후의 본문 한글 표기는 이 표에 준하나 假名の 表音까지도 반드시 이 대조표에 준한다고는 볼 수 없다. 추측하건대, 이 「九十九音之圖」는 호세코가 당시의 한국어를 일본어의 假名로 転写하는 표기적 성향을 종합·정리하여 그 기준을 세우고자 한 일종의 表記的 規範을 제시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潮流인 規範意識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本書는 이후의 한국어 학습서류의 구성이나 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九十九音之圖」(일부) : 『日韓善隣通話』上卷 「發音」부분

音 母										子音	開合法
異	イ	凝	時	非	肩	梨	池	尼	其		
表	○	人	邑	音	乙	二	隱	役			
자	아	사	바	마	라	다	나	가	阿	第一級	
자	야	셔	바	마	라	다	나	가	也	第一級	
저	어	셔	버	머	러	터	너	거	於	第二級	
저	여	셔	버	머	러	터	너	거	余	第二級	

1) 語頭音 ‘ㅈ’

非y音 앞에서는 주로 ㅈ로 転写된다.

예) 자: ㅈ아, 저: ㅈ어, 조: ㅈ아, 주: ㅈ어, 즈: ㅈ

한편 y(i) 앞에서는 ㅈ로 나타난다.

예) ㅈ: チャア, ㅉ/ㅊ: チャウ, ㅊ: チウ/チュ, ㅊ: チー

2) 有氣音

대조표상에서는 한글의 語頭 有氣音인 開音節 末에 각각 ツ를 併記하여 그것이 有氣音임을 나타낸다.

예) ㅈ: ツアツ, ㅉ: パツ, ㅊ: チツ, ㅉ: 피츄, ㅉ: クワアツ

단, ‘ㅈ, ㅉ, ㅊ’ 음절에는 대개 拗長音으로 表音하고 있다.

예) ㅈ: チャア, ㅉ: キャウ, ㅊ: チウ, ㅉ: 피츄

3) 硬音

語頭 合字並書는 기본적으로 ‘ㅈ’는 ㄱ行音, ‘ㅉ’는 ㅋ行音, ‘ㅊ’는 ㅊ行音, ‘ㅍ’는 ㅍ行音으로 表音된다. 그리고 일부 硬音에 有氣音의 区分符号로 사용되었던 ツ가 나타난다.

예) ㅍ: 피츄리: コエツコーリー<下22a>, ㅍ: 사츄: サツル<下14a>

4) 内破音的 ツ 表記

실제적인 발음상 後行하는 硬音이나 有氣音 앞에서 内破음적인 요소를 나타낸다.

예) 이 ㅍ: 이츄: イツプン<下5b>, 이틀: 이츄츄: イツツル<下6a>, 모친: 모츄친: モツチン<下24b>

결과적으로 ツ는 한국어 음절의 初聲이 有氣音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적 표기 기능과, 後行하는 硬音이나 有氣音 앞에서 발음되는 받침(内破음)을 나타내는 음소적 표기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轉写法은 『全一道人』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었다.

5) 語頭音 ‘ㄴ’

‘ㄴ’와 ‘ㄹ’을 ㄴ(ツ)와 ㄴ(ㄴ)으로 표기한 예가 보인다.

예) ㄴ: ㄴ: ドートン<上24a>, ㄴ: ㄴ: ドイ<上23a>

6) ‘ㄷ’와 ‘ㄸ’

ㄷ(一)로 表音된다.

예) ㄷ: ㄷ: ツール<上23a>, ㄷ: ㄷ: ツーリーラー<下4b>

7) ‘·’音

일반적으로 ア段音으로 表音되는데, 『交隣須知』와 마찬가지로 제2음절 이하에서는 オ段音으로 표기되는 예도 보인다.

예) 흐르길이올시: ハーローキーリーアルシー<下6>

한편 대조표에서는 ‘ㅏ’는 일본어의 長音(一), ‘·’는 短音으로 구별하여 表音하였다. 발음상 이미 구별이 없어진 시기의 이 두 音注는 발화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두 字母의 形態的 相異를 의식한 轉写表記라고 할 수 있겠다.

8) 母音交替 轉写

語中에서 ‘ㅏ’(ə)나 ‘ㅑ’(yə)가 일본어의 ア段音으로 교체된 예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 싯겨라: シッカーラー<下10a>, 지렁: チラグ<下10b>

내여라: ナーヤーラー<下13a>

이러한 轉写表記는 이후의 다른 문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가령 本書보다 3년 뒤인 1884년에 간행된 『明治字典』¹²⁾에는 ‘셜 샤울’ ‘적을 차우쿠울’처럼 口蓋音 ‘ㅏ, ㅑ, ㅓ’ 다음의 ‘ㅑ’를 仮名 ア段 長拗音 [jau] 으로 音注한 예들이 나타난다. 이 ‘ㅑ’에 대하여 일본어의 仮名 音注가 開音으로 轉写된 것은 현대한국어의 ‘ㅑ’와 비교하여 다소 後舌開母音性으로 발음된 발화현실을 반영한 표기라는 지적인데(정광 1982:36), 본서에는 구개음 ‘ㅏ, ㅑ, ㅓ’ 이외의 자음에도 나타난다. 당시에 ‘ㅏ, ㅑ’ 모음은 開母音性의 音声資質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전사표기로 보인다.

9) 長音 仮名 表記

長音(一) 仮名 表記는 한국어 발음상 받침이 없는 開音節(혹은 連音에 의한 개음절)을 구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조표상에서는 二重母音節에도 보이나 실제로 본문에서는 單母音節에서 주로 나타난다. 발음상 폐음절의 경우에는 一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前述한 古写本類의 『交隣須知』에서 그 사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日韓善隣通話』에서 일반화된 독특한 전사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찍이 서양의 문법에 관심이 많았던 宝迫

12) 여기서 인용한 『明治字典』은 19책 1485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各部에 소속된 漢字를 그 部の 말미에 모아 그 한자들의 音과 訓을 기록하고 그 한글 하나하나에 仮名로 발음을 표기하였다.(정광1982:33-34)

繁勝으로서 서양 문법의 영향으로 분석적인 표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예) 딸디: スルッテ<下12b>, 미얌이: マーヤーミー<下21a>

결과적으로 『日韓善隣通話』의 仮名 音注는 『全一道人』과 비교하여 보다 表音的인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表記法이 中世国語(音素的 連綴表記), 近代国語(形態的 分綴表記), 現代国語(形態音素的 分綴表記)로 변화한 것과 비교하면, 그 발음을 転写한 仮名 音注 表記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表音的 表記 方向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장음표기를 사용하여 발음상 음절의 단위를 구분하려는 시도에서는 일본어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交隣須知』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交隣須知』에서는 당시의 表記現實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日韓善隣通話』에 제시된 표기법은 그것을 규범적으로 통일하고자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5. 한국어에 仮名로 발음표기한 학습서류

(1) 和韓會話獨學 (1882)

編著者는 다케다(武田甚太郎)로 32쪽의 小冊子이다. 일상적인 회화문을 활용하여 日用的 간단한 單語나 語法을 연습하도록 되어 있다. 上下段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일본어를, 하단에는 그것의 韓國語訳을 적고 있다.

1) 어두음 ‘ㅈ’

非y音 음절에는 ツ, y 음절에는 ㅈ로 表音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자: ツァ, 주: ツ(ウ), 즈: ツ, 차: チャ, 저/조: チョ(ウ), 지: チ

단, 새로운 표기로 ザ行音 仮名을 사용한 예도 보인다.

예) 자: サ/ザ, 저: ゴウ, 제: ゴイ

특히 ‘즈’와 ‘즈’는 ツ와 ㅈ로 구별 표기하고 있다.

2) 有氣音 표기로 語末의 ㅈ는 없어지고 대신 ‘차(자)’의 전사표기로 ㅈ가 새로 도입되었다.

예) 츠지라: サヂラア<11>

3) 有氣音이나 硬音 앞에 오는 内破音의인 ッ는 소수의 예에 불과하다.

예) 기찬이: カイッサーニ<1>

4) ‘너’와 ‘네’를 ㄷ와 ㄸ로 표기한 예가 보이고, ‘두’와 ‘드’는 ッ(一)로 表音되고 있다.

예) 네: ㄸ어<12>, 드렸다: ッ로ッ따<14>

(2) 日韓英三国対話 (1892)

編者인 아카미네(赤峰瀬一郎)는 能本 출신 신문인으로, 著書로는 『米國政教の内幕』(1887) 등이 있다. 本書는 한국어의 경우 당시의 경성 말을 사용하고, 일본어는 동경어를 중심으로 영어를 대조한 회화서이다(桜井 1979:498). 본서는 進술한 雨森芳洲의 『交隣須知』를 주된 참고서로 삼아 편찬된 것으로,¹³⁾ 『交隣須知』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菊判 173쪽)

1) 語頭音 ‘ㅅ’

모두 ㅅ와 ㅅ行 拗音으로 表音된다. 당시에는 이미 치경음 ‘ㅅ’이 구개음화되었음을 반영하는 轉写의 예로 볼 수 있겠다.

예) 자: ㅅㅅ, 좌: ㅅㅅㅅ, 지: ㅅ

2) 語頭 ㅅ字並書의 ‘ㅅ’에 해당하는 부분과 有氣音 표기에 ッ가 사용되고 있다.

예) ㅅㅅ: ッㅅㅅ, ㅅㅅㅅ: ッㅅㅅㅅ, ㅅㅅㅅㅅ: ッㅅㅅㅅㅅ

ㅅㅅㅅㅅ: ッㅅㅅㅅㅅ, ㅅㅅㅅㅅㅅ: ッㅅㅅㅅㅅㅅ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어의 ㅅ字並書와 관련한 형태적 요소와 有氣音 앞에 개입되는 表音的 요소를 促音으로 전사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ㅅㅅ’와 같은 ‘ㅅㅅ’음절에는 ㅅㅅ 假名를 중복해서 表音하고 있다.

예) ㅅㅅ/ㅅㅅ: ㅅㅅㅅ, ㅅㅅㅅ: ㅅㅅㅅㅅ, ㅅㅅㅅㅅ: ㅅㅅㅅㅅ, 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

3) ‘너’와 ‘네’는 ㄴ와 ㄸ, ‘두’와 ‘드’는 ッ(一)로 表音된다.

예) 너 어머니: ㄴ 오모니<上85>, 두 근: ッ근<下34>

4) ‘ㄱ’와 ‘ㅋ’는 각각 ㄱ(o)와 ㅋ(yo)로 表音된다.

예) 간하여도: ㄱㅅㅅㅅ<下158>

13) 본서의 自序에 「参考書トシテハ種々ノ本共ヲ用ヒシガドモ夫ガ中ニテ雨森芳洲先生ガ編輯サレニケル交隣須知コソハ最モ貴キ助援成ケレバ……」라고 적고 있다.

5) 받침이 二重子音が 오는 경우 형태적으로 대응시켜 仮名 音注하고 있다.

예) 값: カルク, 꺾: 칼푸

본서는 당시의 다른 문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形態的 表音 성향이 강한 것 같다.

(3) 日韓會話 (1894)

日本の 參謀本部가 편찬한 포켓판 軍用書이다.¹⁴⁾ 日本語文의 対訳인 한국어에 片仮名로 그 발음이 転写되어 있는데, 桜井義之(1979:501)도 「日本の仮名では発音しにくいものには仮造の間音、例えばツ等で表わし、句節の切段は左側に傍線で示す等苦心が見られる」라 하여, 한국어 발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궁리해 낸 ッ표기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本書에서 특수하게 고안해 낸 표기법은 아니고, 이미 『交隣須知』 이후의 『日韓善隣通話』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한국어의 有氣音이나 硬音의 弁別標識이라고 하는 당시의 표기적 현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菊半裁判 256쪽)

1) 語頭音 ‘스’

주로 ㅈ와 ㅊ行 拗音 표기이다. ッ를 사용한 表音은 ‘즈’와 ‘좌’ ‘주/즈’ 음절에 일부 보인다.

예) 자: ㅈャ(-), 주: ㅈゅー, 지: ㅈ, 즈: ㅈァー, 좌: ㅈォァー
주/즈: ㅈ(-)

예외적으로 조(ㅈゅー)의 예도 나타난다.

예) 병졸이: ㅈょぐゞーり<198>

2) 有氣音

語頭に ッ가 없는 표기가 일반적이거나 일부 ‘ㅈ, ㅊ, ㅌ’ 음절에 ッ가 보인다.

예) 처/չ: ㅈちょ(-), 치: ㅈち, 타: ㅈた, 츠: ㅈつ, 푸: ㅈぷ

3) 硬音

語頭に ッ가 없는 表音이 일반적이거나 일부 합자병서 ㅅ의 音注로 ッ가 보인다.

예) 싸: ㅈカ(-), 쏘: ㅈこー, 째: ㅈたい, 쏘: ㅈト(-), 쏘: ㅈちょ

14) 緒言 「本書纂述ノ目的ハ朝鮮語未知ノ軍人ヲ利スルニ在リ故ニ用語ニ務メテ平易簡略ヲ主トシ成ルヘク軍隊必要ノ語言ヲ撰録セリ」

4) ‘너’는 ノ, ‘네’는 ネー/デー/ノイ. ‘두’와 ‘드’는 ツ(一)로 ツ라는 특수한 전사 표기를 하고 있다.

예) 드러가겏소: ツ°ローカーカエツソ<220>

위 문헌들은 대체적으로 현실 발음을 의식한 表音的 表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헌별로 새로운 표기가 고안되어 사용되었는데, 그러한 시도 또한 일본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한국어의 현실적 발음을 반영하기 위한 궁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日韓善隣通話』 이후의 仮名 音注의 주된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語頭音 ‘스’는 y 앞에서는 ツ, 非y音 앞에서는 夕行 拗音 표기로 통일.
- (2) 음절 말에 나타나는 有氣音 標識의 ツ가 음절 앞으로 이동.
- (3) 單音節과 語頭 合字並書 ‘스’의 表音으로 ッ 표기 병행.
- (4) 單母音과 二重母音의 전사표기 병행.
- (5) 語頭音 ‘ㄴ’는 夕行音에서 十行音 表音으로 변화.
- (6) ‘두’와 ‘드’는 ツ(ウ) 表音으로 통일.
- (7) ‘ㄱ, ㅋ’는 才段音으로 転写.
- (8) 内破音的 要素인 ッ 표기는 소멸.
- (9) 발음상 開音節의 標識符号인 長音表記는 소멸.
- (10) 특수한 표기는 고안되어 사용됨.

(6)의 ‘두’와 ‘드’는 『全一道人』에서는 오로지 卜로 表音되고 『交隣須知』에서도 일부 用例가 보이는데, 『日韓善隣通話』 이후에는 ツ(ウ)로만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8)의 内破音的 要素인 ッ는 소멸되는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본인의 귀에는 발음상 실제로 有氣音이나 硬音 앞에 ッ가 삽입된다고 인식하기 쉬운 점을 감안한다면, 有氣音이나 硬音 앞에 ッ가 삽입되는 쪽으로 音注가 변화한 것은 내파음적 요소인 ッ의 소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파음적 요소인 ッ가 有氣音이나 硬音의 区分符号로 기능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1)에서부터 (6)까지의 항목에 해당하는 転写表記의 경향을 仮名에 의한 한국어 音注만 있는 학습서류를 대상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 仮名에 의한 한국어 발음표기만 있는 학습서류

여기에 속하는 학습서류에 대한 詳述은 생략하고, 이하 주로 桜井義之(1979)에 의거하여 각 문헌에 관하여 書誌的 事實의 일부만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문헌의 크기는 편의상 大(A5, B5) · 中(B6, 四六判) · 小(A6, B7)로 나눈다.

(1) 朝鮮醫語類集 (1894.6)

本書는 海軍 軍醫 鈴木裕三가 수집한 어휘를 類集하여, 해군 군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中 26쪽.

(2) 朝鮮語海上用語集 (1894. 6)

해군 소위 후보생 田村宮太가 海上用語 100여개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분리 수록한 것이다. 小 12쪽.

(3) 朝鮮俗語早学 (1894.7)

한국어의 일상용어를 「いろは順」으로 배열 수록한 것인데, 편자명이나 출판 의도는 불분명하다. 渡航者用の 添物出版에 속하는 것이다. 小 42쪽.

(4) 兵要朝鮮語(1894.7)

본서는 近衛歩兵第1旅団에서 편집한 것으로 陸軍參謀本部屬 多田垣가 校正하였다. 내용은 兵要의 단어를 「いろは順」으로 배역 수록한 것이다. 中 67쪽.

(5) 実用朝鮮語 (1894.7)

정식 책명은 『実用朝鮮語正編』으로 편저자는 中島謙吉이다. 군인들의 軍務執行을 보조할 목적으로 편집되었다. 小 56쪽.

(6) 朝鮮日本会话篇 (1894.8)

정식 책명은 『速成独学 朝鮮日本会话篇』이고 阪井武堂校閱. 卷頭에는 한국어 99음표가 들어가 있다. 中 62쪽.

(7) 新撰朝鮮会话 (1894.8)

著者 洪奭鉉은 일본어를 伝習하고, 일본어로 본서를 편집했다. 일상회화를 34編으로 나누고, 卷末에 서한문 및 주요지명의 한국어를 첨부하고 있다. 小 162쪽.

(8) 日清韓對話便覽 (1894.9)

정식 책명은 『宣戰勅語入 日清韓對話便覽』이고 편저자는 田口文治이다. 卷頭に 清國에의 선전포고에 즈음한 伊藤博文의 「詔勅」이 들어가 있다. 仮名에 의한 한국어 전사표기는 책 마지막 部の 「日韓對照兵語要略」에 약 10쪽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小 35쪽.

(9) 日韓清會話 (1894.9)

정식 책명은 『獨習速成 日韓清會話』이다. 著者は 吉野佐之助, 時局出版의 添物冊子이다. 小 50쪽.

(10) 日清韓三國會話(1894.9)

著者 坂井鈞五郎는 『日韓會話』(1904)의 편자이기도 하다. 軍人 및 渡航者用으로 편집된 것이다. 小 188쪽.

(11) 朝鮮通語獨案内 (1894.12)

著者は 松岡 馨이다. 緒言에 「本書編纂ノ意ハ第一出征軍人ニ便シ、第二貿易ノ商人ヲ利スルニアリ」라는 記述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본서는 군인과 상인들을 위한 한국어학습서로 편집되었다. 中 177쪽.

(12) 日清韓三國通話 (1894.12)

編著者は 天淵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풍속 습관에 관한 어휘를 대조하였다. 책의 후반부에는 한일어 대조 초보 회화문이 수록되어 있다. 小 118쪽.

(13) 日露清韓會話自在法(1904.2)

編著者は 万国語学会 講師 武智英이다. 책 후반부의 「日韓單語篇」 「日韓會話」의 약 10쪽에 걸쳐 일상적인 단어와 회화문이 소수 게재되어 있다. 역시 군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大 30쪽.

(14) 韓語獨り卒業(1904.4)

정식 책명은 『韓語獨り卒業(一週間速成)』. 편저자는 安部正尹, 校正者は 朝鮮學堂의 金道義이다. 한국어 초보자들을 위하여 일상의 必須的인 단어와 회화문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小 35쪽.

上記의 학습서류는 본문에 한국어가 없고 仮名에 의한 한국어 발음의 전사

표기만 있는 관계로, 仮名 音注와 대응하는 한국어의 정확한 語形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본의 仮名 音注 표기로부터 비교적 파악이 용이한 한국어 항목에 대한 転写表記의 경향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편의상 長音 転写表記 一는 생략한다)

한국어 학습서	ㅅ	有気音	硬音	ㅅ	ㅅ	ㄴ	ㄴ	ㄷ
朝鮮医語類集	자:チャ	치:チ /ツチ	쑤:ク	매:マイ /メ	테:テ		ヌ/ズ	ツ(ト)
朝鮮語海上用語集	자:ツア	푸:フ /フツ		개:カイ			ツ	
朝鮮俗語早学	주:ツウ	푸:フ /フツ /フツ	끼:キ	대:タイ /テ	깨:케이		ヌ	
兵要朝鮮語	자:チャ 즈:ツ /ツ	차:チャ /ツチャ	쓰:ク /ツク	내:ナイ /ナエ	개:카이 (카에) /케	ㄴ/ㄷ		ツ /ツ°
實用朝鮮語	자:チャ 즈:ツ /ツ /츄	치:チョ /チョツ /ツチョ	뜨:トウ /ト	대:타이 /테	개:카이 /케	ㄴ	ヅ(ウ) /ドウ	ツ
朝鮮日本会话篇	자:チャア	츄:츄 /츄츄우	까:카 /ツ카아	개:카이 /케이 (케)	레:레	ㄴ	ヌ	ツ/ト
新撰朝鮮会话	즈:츄 자:자아	치:치(치) /치 /츄치	깨:카이 /가이 짜:자 /츄자	개:카이 /케	개:카이 /케		ヌ	ヅ:즈 /ト
日清韓對話便覽	자:ツ아	초:초	까:카	내:나이 /네	개:카이 /케	ㄷ		ツウ /ト /ヅ
日韓清会话	자:チャ	토:ト /ト	쓰:ク /ツク	대 / 태:타이	개:케	ㄴ		
日清韓三国会話	자:ツ아	차:ツ아ツ		개:카이	개:케	ㄴ		ツ
朝鮮通語独案内	자:자 /자아	치:치 /츄치		배:바이 /페	네:네이 /도이	ㄷ /드라		ヅ/ト
日清韓三國通話	자:チャ	치:치/치		개:카이	개:케			ト
日露清韓会话自在法	지:치	케:케	까:카	대:타이 /테	개:케이 /케		ヌ	ツ/ヅ
韓語独り卒業	지:치 /지	코:코	쑤:ク	내:네	개:케		ㄴヌ	ツ/ズ

일부 문헌에서 보수적인 표기가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日韓善隣通話』를 포함하여 한글에 仮名로 발음표기한 학습서류의 경우와 같은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ㅅ’과 관련해서는 非y音 앞에서도 夕行 拗音 表記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有気音과 硬音의 경우는 單音節 転写가 일반적이지

만 한편으로는 음절 앞에 ㅃ가 들어가 있는 표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轉写는 1904년의 문헌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二重母音 표기의 경우 單母音 表音과 二重母音 表音が 병행되며, 語頭音이 ‘ㄴ’인 ‘ㄴ’과 ‘ㄴ’도 /와 ㅃ로 전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두’와 ‘드’ 또한 ㅃ(ㄴ) 표기로 일관된다는 점에서 앞서 다룬 문헌들과 궤를 같이한다. 단, 洪奭鉉이 『新撰朝鮮會話』에서 有氣音이나 硬音을 表音하기 위하여 濁音과 半濁音 符號를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7. 맺음말

한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轉写(表音)에 대하여 18세기의 『全一道人』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에 걸쳐 편찬된 학습서류를 대상으로 그 表記的 傾向을 살펴 보았다. 거시적으로는 假名 表音이 表意的(形態的) 轉写表記에서 表音的(音素的) 轉写表記로의 변화와, 장음표기와 같은 초기의 일본어적인 轉写法이 점차 한국어의 실제적인 현실발음에 가까운 전사표기로 변하는 경향을 하나의 흐름으로서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그때까지의 정립되지 않았던 전사표기를 종합 정리하여 그 표기적 규범을 제시한 문헌이 宝迫繁勝의 『日韓善隣通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日韓善隣通話』를 필두로 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이와 같은 문헌들 사이에서는 전사표기상 두드러진 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는 『日韓善隣通話』가 이후 문헌들의 표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假名 轉写法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19세기 후반의 한국어학습서류를 대상으로 그 표기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문헌별 개별 언어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실 한국어에 대한 언어지식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일본인에 의한 전사표기이니만큼 거기에는 당연히 일본어의 간섭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表意的 表記보다는 表音的 表記에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이다. 앞으로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일본어학습서류를 포함하여 한국어의 일본어 假名 轉写表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남옥(2009)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과정」 『정신문화연구』 115호, pp.193-222, 한국학중앙연구원
- 송 민(1986) 『前期近代国語 音韻論 研究』 국어학회
- 정 광(1982) 「『明治字典』의 國語語彙에 대하여」 『덕성여대논문집』 11집, pp.25-41
- 陳南沢(2003)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と韓国語の音韻史研究』 東京大学博士論文
- 편무진(2001) 「『韓國資料』의 기초적 연구(1) —韓國人을 위한 日語學習書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11집, pp.175-203, 한국일본문화학회
- 편무진(2001) 「개화기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교류』, pp.111-13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편무진(2005) 『交隣須知の基礎的研究』 제이앤씨
- 편무진·岸田文隆(2005) 『Aston文庫所藏 交隣須知 [解題 本文 索引]』 홍문각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岸田文隆(1998) 「W.G.Aston 소장의 『交隣須知』 写本에 대하여」, 국어사자료 연구회 발표자료
- 桜井義之(1974)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明治・大正期における業績の解題」 『韓』 3-8, pp.107-120, 한국연구원
- 桜井義之(1979) 『朝鮮研究文献誌』 龍溪書舍
- 前間恭作(1909) 『韓語通』 前間恭作著作集(上) 所収, 京都大学文学部
- 安田章(1964) 『全一道人の研究』 京都大学文学部
- 山田寛人(1997) 「朝鮮語學習書·辞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 —1880年~1945年—」 『朝鮮学報』 169輯, pp.53-83, 朝鮮学会
-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不二出版

要 旨

韓国語に対する日本語の転写について、18世紀の『全一道人』から20世紀初までにわたって編纂された韓国語の学習書類を対象に、それらの表記的な傾向を検討してきた。その結果、巨視的には仮名表音が表意的（形態的）転写表記から表音的（音素的）転写表記への変化と、長音表記のような、初期の日本語的な転写法が漸次韓国語の実際的な現実発音に近い転写表記に移り変わる傾向を一つの流れとして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いっぽう、それまで定立されていない転写法を整理して表記的な規範を提示したのが宝迫繁勝の『日韓善隣通話』である。この『日韓善隣通話』を初めとする19世紀末から20世紀初にかけてのこの種の文献の間では、転写上の目立った変化はあまり見出せなかった。それはこの『日韓善隣通話』が後の文献らに及ぼした影響が大きかったからであろう。本稿では、仮名転写法の変遷という観点から全体的な表記の傾向を把握することを目指したために、各文献別の個別的な言語現象に対する詳論までは及ばなかった。今後、日帝植民地期に編纂された日本語学習書を含めた、韓国語の仮名転写表記に関するより体系的な研究が望まれる。

キーワード：全一道人、交隣須知、日韓善隣通話、韓国資料、仮名転写表記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